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 의정활동보도

2018년 11월 5일  
(월요일)

강북신문 5면

##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중학교 신설촉구 결의안 채택

서승목·이용균·이정식 의원 공동발의...교육 환경개선 위한 신설 촉구

강북구 미아2재정비촉진구역의 학교부지 내에 중학교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지역구의원들의 발의로 통과됐다.

이 결의안은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학교부지 내 중학교 신설 촉구 결의안’으로 강북구의회(의장 이백균)는 지난 10월29일 열린 제2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당지역 출신의 서승목·이용균·이정식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미아2재정비촉진구역은 강북구 미아동 403번지 일대로 학교부지 21,011㎡를 확보하고 그중 12,027㎡를 중학교 부지로 확보한 상태이나, 현재 교육당국의 ‘중학교 신설 수요 없음’이라는 반대이유로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강북구의회는 미아2재정비촉진구



서승목 의원

역 학교 부지 내 중학교 신설을 촉구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특별시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이 성북구 길음뉴타운의 길음중학교 사례를 참고하여 중학교 신설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교육당국이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의 해법의 하나로써 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중학교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해당지역 출신의 서승목 행정정보건위윈장과 이용균, 이정식 의원이 공동발의 했고, 서승목 위원장이 대표로 제안 설명했다.

역 학교 부지 내 중학교 신설을 촉구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특별시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이 성북구 길음뉴타운의 길음중학교 사례를 참고하여 중학교 신설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교

동북일보 4면

결의안

##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학교 부지 내 중학교 신설 촉구

서 승 목 의원

(더불어민주당/삼양동,삼각산동,송천동)

서승목 의원은 10월 29일 열린 제 21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학교 부지 내 중학교 신설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서 의원은 미아2재정비촉진구역은 강북구 미아동 403번지 일대로 학교부지 21,011㎡를 확보하고 그중 12,027㎡를 중학교 부지로 확보한 상태이나 현재 교육당국의 ‘중학교 신설 수요 없음’ 입장으로 중학교 신설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은 약 3,000세대 이상이 입주예정이며, 해당 구역 외에도 미아3재정비촉진구역과 현재



▲ 서승목 의원.

성북구 길음동 498번지 일대에 건축 중인 래미안 센터피스를 포함하면 약 9,000세대 이상의 교육수요를 신설 중학교에서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과 200미터 떨어져 있는 삼양로 건너편 삼각산동 래미안 트리베라 1,2차 아파트와 두산위브 트레지움 아파트까지 신설 중학교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 교육당국에서 주장하고 있는 ‘중학교 신설 수요 없

음’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노인 인구가 서울시에서 최고 많은 강북구에서 교육 환경개선을 통한 신혼부부 및 30~40대 학부모들의 유입이 막히게 되고 저출산-고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서승목 의원은 물론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학생 감소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삼각산중학교와 성북구의 길음중학교는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학교로 유명하며 두 학교 모두 현재 중학교 신설 예정지에서 불과 1km도 떨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라면서,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특별시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은 성북구 길음뉴타운의 길음중학교 사례를 참고하여 중학교 신설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미아2구역 중학교 신설 촉구”



▲ 서승목 강북구의원

강북구의회가 현재 진행중인 미아2동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해 해당 지역 학교 부지 내 중학교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서승목 구의원 발의로 채택했다.

미아2재정비촉진구역은 강북구 미아동 403번지 일대로 학교부지 21,011㎡를 확보하고 그중 12,027㎡를 중학교 부지로 확보한 상태이지만 교육당국이 '중학교 신설 수요 없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중학교 신설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서승목 의원은 “재정비촉진구역은 약 3,000세대 이상이 입주예정이며, 해당 구역 외에도 미아3재정비촉진구역과 현재 성북구 길음동 498번지 일

대에 건축 중인 래미안 센터피스를 포함하면 약 9,000세대 이상의 교육수요를 신설 중학교에서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교육당국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인근 삼각산중학교와 성북구의 길음중학교는 과밀학교인데도 학생수가 감소한 다면서 신설을 반대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북구의회측은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구 전체 상황에 비춰 중학교 신설까지 막힌다면 교육 환경개선을 통한 신혼부부 및 30-40대 학부모층 유입이 막히게 되고 저출산-고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입장이다.

# 강북구의회,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중학교 신설촉구 결의안 채택



서승목 의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회(의장 이백균)는 지난 10월 29일 제2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 학교부지 내 중학교 신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아2재정비촉진구역은 강북구 미아동 403번지 일대로 학교부지 21,011㎡를 확보하고 그중 12,027㎡를 중학교 부지로 확보한 상태이나, 현재 교육당국의 '중학교 신설 수요 없음'이라는 반대이유로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강북구의회는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학교 부지 내 중학교 신설을 촉구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특별시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이 성북구 길음뉴타운의 길음중학교 사례를 참고하여 중학교 신설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교육당국이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의 해법의 하나로써 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중학교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은 해당지역 출신의 서승목 행정보건의위원장과 이용균, 이정식 의원이 공동발의 했고, 서승목 위원장이 대표로 제안 설명했다.